

치 사

아기산 자락에 깃든 푸른 신록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뽐내고 있는 계절입니다. 멀리서 보면 온통 초록일 뿐이지만 자세히 보면 만물 각자가 독특한 자신만의 색으로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조용한 색의 향연은 곧 다가올 더위와 풍요의 계절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처럼 부처님 품에서의 인연들도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부대중은 신라 고찰 봉황사 중창불사 회향 및 점안 대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향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공덕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6교구 본사 주지 호성스님과 권영세 안동시장님의 지원과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의 공덕이 두루 환한 인연의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 봉황사는 임진왜란의 와중에 소실되어 그동안 도량 본래 면모를 찾지 못하고 그 이름마저 황산사로 불려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서야 제 이름을 찾은 것은 물론, 현 주지스님이 진산(晉山)하여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여러 불사가 오늘 회향하였으니, 사찰은 물론 교구의 기쁨입니다. 이 도량에서 뭇 중생 모두가 부처

님의 법을 배우고 나누며 수행 정진하여 웅장했던 가람의 옛 모습을 되찾고 아기산을 비롯한 안동지역에 널리 법음의 향기를 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찍이 보시의 으뜸은 법을 나누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 부처님, 모래 탑을 세운다 해도 그 공덕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도량이란 삼보가 상주하여 모든 인연이 이곳에서 만나 서로 깨달음을 이뤄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생사윤회의 업고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도량이 새롭게 중수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새로이 탄생하신다는 의미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불사의 과정을 함께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비된 부처님의 도량에서 우리는 시대의 아픔에서 세상의 혼돈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과 더불어 수행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노력하며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갑시다. 여러분의 정진과 회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년 6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